

2023. 7. 10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10일(월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영업지원처장  | 서길호                  | 6311-9580 |
| 담당팀장    | 이재명                  | 6311-9550 |
| 담당자     | 장동욱                  | 6311-9589 |
| 관련 홈페이지 | www.seoulmetro.co.kr |           |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: 3쪽

### 에스컬레이터 이용 수칙!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
-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 중 99%는 승객 안전 수칙 미준수 사고...피해 배상 불가
- 서울교통공사·한국승강기안전공단, 17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안전 캠페인 실시
- 지하철 역사 내 시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 목적

# 2023년 1월 26일, 오후 12시 52분경 2호선 봉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오던 남자 승객이 비명을 질렀다. 핸드레일을 잡지 않고 걷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. 이 승객은 다친 부위를 치료 후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지만, 이 경우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로 치료비 지급이 거절되었다.

-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서울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사고 중 약 99.6%는 안전 수칙 미준수 사고이다. 이용 승객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거나 뛰고 안전 손잡이를 잡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.
- 서울교통공사(이하 '공사'라고 함)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하 '공단'이라고 함)이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 3일부터 서울 지하철 17개 역사에서 이용 시민의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수칙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

했다.

- 캠페인 추진 역사는 1호선 동묘앞, 2호선 신도림, 3호선 신사역 등 환승역 및 승강기 사고 다발역 위주로 선정했다.
- 이는 지난 5월 출범한 공사와 공단 간 안전 협력 네트워크인 「승강기 안전 파트너스(Partners)」의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활동의 일환이다.
  - 또한 역세권 인근 복지관 및 대한노인회도 함께하여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.
- 이번 캠페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안전한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 캠페인 내용으로는 ▲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안전손잡이(핸드레일) 잡기 ▲에스컬레이터 이용시 걸거나 뛰지 않기 ▲유모차 또는 손수레 휴대 시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등 이다.
  - 공사와 공단의 협업 활동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이다.
- 에스컬레이터에서 걸거나 뛰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, 특히 여름철에 많이 신는 ‘크록스’, ‘샌들’ 등 부드러운 재질의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.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발판에 그려진 노란 선 안쪽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탑승할 필요가 있다.
-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 서길호 처장은 “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 방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.”라며 “향후 두 기관 간 협력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캠페인 사진. 끝.

#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캠페인 사진

